

## 남해 독일마을 '청년마켓' 만족도 89%...관광객 48% 증가

10월6~8일 개최 맥주축제 사전 이벤트 9월18일·10월 4일도 열려

(남해=뉴스1) 한송학 기자 | 2023-09-14 13:06 송고



남해 독일마을에서 진행된 도르프 청년마켓(남해군 제공).

경남 남해군 독일마을 광장에서 진행된 '도르프 청년마켓'이 방문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으면서 새로운 킬러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14일 남해관광문화재단에 따르면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앞두고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 '도르프 청년마켓'이 만족도 89.3%를 받으며 성료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하나로 지난 9일 진행된 이 마켓은 남해의 인기 있는 지역상품을 독일마을 광장에서 판매했다.

방문자 대상 만족도 조사(응답수 336명)결과에서는 매우 만족이 53.6%, 만족 35.7%를 받았고 셀러들 만족도는 매우 만족 47.8%, 만족이 39.1%로 평가됐다.

독일마을 방문객은 일주일 전 3114명보다 많은 4625명으로 48.5%가 증가했다.

청년마켓은 총 23팀의 다양한 셀러들이 남해의 매력을 담은 관광굿즈와 남해농산물을 활용한 여러 가공품을 판매했다. 유자카스테라와 멀치모양의 멜빵 등 특색있는 상품도 호응을 받았다.

싱어송라이터와 전자바이올린 공연이 진행돼 눈과 귀를 즐겁게 했으며 양철인간 마임거리 공연은 큰 호응을 얻었다.

유럽형 매대와 파라솔, 통일된 디자인과 운영물품 제공으로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과 청년 셀러의 조화가 돋보였다.

도르프 청년마켓의 가장 큰 장점으로 '독일마을 광장이라는 장소성'으로 평가됐다. 공간구성과 연출력, 룰렛이벤트나 영수증사진기도 좋은 호응을 끌어냈다.

오는 18일에는 독일마을 광장입구 거리에서 도르프 청년마켓이 진행되며 독일마을 맥주축제(10월 6~8일)에 앞서 사전 붐 조성을 위해 10월 4일에도 청년마켓이 열릴 예정이다.

도르프 청년마켓 소식과 문의는 남해관광문화재단 홈페이지나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